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두
 렷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 출신의
 월드클래스 작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 일
 본 도쿄, 독일 뒤셀도르프 등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들의 주요 미술관
 에서 한국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회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생생한 증거다. 백남준, 이우환의 계보를
 잇는 이들은 주로 40~50대로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중형무진 활동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한국 작가, 세계의 공간을 사로잡다

감수성 품은 설치미술가 양혜규, 中 등 전 세계 20곳서 전시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작가 이불, 뉴욕·파리 등 개인전
 '정체성 탐구' 서도호, 도쿄 모리미술관서 아티스트 토크도
 예술가 겸 문화이론가 코디최, 독일 등 유럽 미술관 순회

특유의 감수성이 넘치는 서사적 작품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설치미술가 양혜규(44)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올해에만 전 세계 미술관 및 비엔날레 20여곳에서 전시 중이거나 전시 예정이다. 현대미술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의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 그가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설치작품 '살림'과 블라인드 설치작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이 각각 전시되고 있다.

'살림'은 작가가 살던 베를린 집의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것으로 사회적 인 직업 활동에 비해 폄하된 부엌을 삶을 지탱하는 기초적인 조직으로 들여다본 감각적 작품이다. MoMA는 지난 30년 동안의 소장품 중 당대 전 지구적인 풍경을 형성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보여 주는 작품들을 선별해 '새로운 유산을 위한 현장: 현대미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전시를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응결'에 소개된 작업 중 하나인 블라인드 설치작품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은 건축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나선형 구조의 구겐하임미술관 공간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열리는 '스토리라인: 구겐하임의 현대미술'전은 2005년 이후 미술관에 소장된 100여점의 설치, 조각, 사진 등을 통해 오늘날 예술가들이 구축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명하는 전시다. 양혜규는 지난 6월부터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그룹전 '바벨탑에 의거하여'를 통해 감각적인 블라인드 및 광원 설치작품 '스웨덴식 빌라' 등 4점을 출품했고 빈(비엔나) 오스트리아 응용미술관(MAK)에서 열리는 비엔나비엔날레(6월 11일~10월 4일)에도

참여해 블라인드 설치작품 '도망치는 투명성'을 출품했다. 프랑스 사제의 아틀리에 칼더 레지던시에서 여름 3개월 동안 체류 중인 양혜규는 9월부터 리옹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2015 리옹비엔날레에서 블라인드 설치작품 '솔르윗 뒤집기-23배로 확장된,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을 변형한 작품을 출품하고 10월부터는 중국 베이징의 예술구역 798지구에 위치한 울렌스현대미술센터(UCCA)에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갖는다.

설치미술가 이불(51)의 2008년 작품 '오블리비온에 대하여'도 구겐하임미술관 소장품전에 소개되고 있다.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불은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파리의 팔레트도쿄에서 개인전을 열고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현대차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대형 공간설치작품 '새벽의 노래III'를 선보인다. 2018년 런던 헤이워드갤러리의 개인전도 예정돼 있다.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역량 있는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서도호(53)는 오는 25일부터 최근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소장품전 '존재와 공간, 서도호+포포'전을 갖는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특별전에서 '집속의 집속의 집속의 집속의 집'을 선보였던 작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개인과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 '인연'(Cause & Effect)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여러 가지 색상의 수많은 작은 사람 모형이 모여 전체를 구성하는 작품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공간들을 통해 실현되는 개개인의 존재를 암시한다. 모리미술관 오디오리움에서는 전시 개막일에 아티스트 토크도 마련했다.

'20세기 문화지형도', '동시대문화지형도' 등 문화비평서를 낸 예술가이자 문화이론가인 코디최(54)는 전후 독일 현대미술의 중심 도시인 뒤셀도르프의 쿤스트할레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을 재개했다. 오는 8월 2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컬처 컷'에서는 1990년대의 초기 작업부터 조각 및 설치작품 시리즈, 최근 작품 등 80여점에 이르는 주요 작품을 총망라해 20여년간의 작품 활동을 보여 준다. 작가의 첫 회고전으로 뒤셀도르프 전시에 이어 네덜란드의 즈블리미술관, 프랑스 마르세유 현대미술관 등 유럽의 미술관 순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코디최는 대중 미디어와 문화의 층위에서 드러나는 동서양 간의 갈등과 편향된 서구화의 추종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회화와 조각, 네온, 설치, 드로잉, 컴퓨터 그래픽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폭넓은 작업 세계를 추구해 왔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과 모노크롬의 대가 이우환의 계보를 잇는 40~50대의 작가들은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중형무진 활약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1 양혜규의 블라인드 설치작품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 2 서도호의 '인연'. 3 이불의 '새벽의 노래III'. 4 뒤셀도르프 쿤스트할레에서 열리는 코디최의 개인전 설치 장면.

